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장기기증 지식에 미치는 영향

주세진¹, 강균영^{2*}, 박정희³

¹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³동아대학교 의료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The Influence of Biomedical Ethics and Brain-Death Organ Donation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Brain-Death Organ Donation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Se-Jin Ju¹, Gyun-Young Kang^{2*}, Jung-hee Park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³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and Psychotherapy, Dong-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군 37명에게는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sher's exact test, t-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관한 지식이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F=35.21,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뇌사, 장기기증, 생명의료, 윤리, 교육

Abstract This study is the quasi-experimental research of nonequivalent groups and is designed to measure and compare the awareness and knowledge of 2 group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 one group who received the education of biomedical ethics and brain-death organ donation and the other group who did not receive the education - regarding biomedical ethics and brain-death organ donation. We conducted this research for the 7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of a certain university located in "C"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ischer's exact test and t-test, ANCOVA using SPSS 23.0 program. As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nowledge of brain-death organ donation between the above 2 groups ($t=35.21, p=.000$). In this regard, the education of biomedical ethic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Key Words : Brain death, Organ Donation, Biomedical, Ethic, Education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paper publish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in 2020. (이 논문은 2020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Gyun-Young Kang(mental74@kduniv.ac.kr)

Received August 24, 2020

Revised September 29,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면역억제와 외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거의 모든 장기의 이식이 가능해졌다. 장기이식은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다.

통계자료[1]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식이 필요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이식대기자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등 모두 합하여 13,540명이다. 장기기증은 뇌사, 사후, 생존을 합하여 2017년 2,810건, 2018년 2,855건, 2019년 3,137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중 뇌사자 장기기증은 2017년 515건, 2018년 449건, 2019년 450건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장기기증과 이식대기자를 비교했을 때 장기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과학 기술의 확장과 더불어 의료인들은 인간 생명의 윤리적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의료인에게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3,4]. 의료인은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지만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노출되면 올바른 선택이 어렵게 된다[5].

생명의료윤리는 건강, 인간의 삶과 죽음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6], 생명의료윤리 범주에는 배아 복제, 낙태, 대리모, 연명의료, 장기이식, 임상시험 등 다양한 범주들이 포함된다. 최근 대학 교육에서는 지식, 술기뿐 아니라 인문학, 역사와 철학, 윤리, 심리학, 글쓰기 등과 같은 인문사회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교육목표에 맞게 인성과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해 생명의료 관련 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Jung & Jung[7]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은 향후 생명의료윤리 문제가 증가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립은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행위와 현명한 윤리적 판단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8]. 따라서 인간 생명과 존엄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간호학문에서 간

호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의 범주 중 하나인 장기이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윤리적인 태도가 된다[2].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뇌사자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이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일반인의 장기기증 태도에도 장기기증 교육경험이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11]. Rykhoff 등[12]도 장기기증 교육으로 지식, 가족 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실천의지가 향상된다고 하였고, 장기기증 의도는 장기기증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국내에서 장기이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간호사[14], 간호학생과 비 간호학생[4,15], 의과대학생[16], 일반인[11]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을 확인하는 이러한 연구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개선 그리고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뇌사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가족과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인들이 뇌사와 장기기증에 관한 필요성과 과정, 역할에 대해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17].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돌보는 의료인으로 장기기증 선택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증자, 수혜자와 가족에게 이식에 관한 정보와 간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제반 절차를 조정하고 이식 관련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한다[18].

따라서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뇌사자 간호나 뇌사자 장기기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명의료윤리교육이 필요하다[3].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은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윤리관 확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

육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3 연구가설

- 가설 1.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지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은 학생을 실험군으로, 제공받지 않은 학생은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C시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유의 수준 .05, 검정력 .70, 효과크기 중간수준 .40, 예측변수 8개를 적용하여 대상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20명이었다. 탈락자를 감안하여 각 40명씩 선정하였고, 결측치가 많은 6부를 제외한 실험군 37명, 대조군 37명을 대상으로 표출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삶과 죽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Kwon[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개 영역 49문항으로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 진단, 신생아의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 생명공학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총점 49점에서 19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

료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3.2 뇌사자 장기기증에 관한 지식

뇌사자 장기기증에 관한 지식은 Yoo[19]가 개발하고 Choi[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뇌사자 장기기증 정의에 관한 핵심 지식, 의학적 지식, 법률 및 관리체계에 관한 지식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총 23 문항이다.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총 점수는 0점에서 2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기증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1-.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6$ 이었다.

2.4 실험 처치: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

실험 처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Kim & Jang[10]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1회기로 6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교육내용과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도입(1시간): 국립장기이식혈액관리원에서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보며 관심을 유도하였다.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과 모듈별 토론을 통하여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돕고자 하였다. 토론 주제는 태아의 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 진단, 신생아의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 생명공학 중 모듈별로 1가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2) 학습활동(4시간): 장기기증 관련법,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장기기증에 대한 정의, 종류, 뇌사 후 판정 절차,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 전 준비, 장기기증 후 관리,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을 포함하였다. 자료는 PPT와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토론(1시간): 모듈별 토론을 통하여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를 돕고자 하였다.

2.5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C시에 소재한 1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

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교육 중 재일인 9월 23일 프로그램 시작 30분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 설문지는 4일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각각 실시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식과 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은 t-test와 ANCOVA로 분석하였다.

2.7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험 처치 전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하며, 연구 참여 시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자료는 기호로 처리될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실험군은 남자 1명(2.7%), 여자 36명(97.3%), 대조군은 남자 6명(16.2%), 여자 31명(83.8%)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실험군 20명(54.1%), 대조군 18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 들어본 경험 있는 경우가 실험군 34명(91.9%), 대조군 29명(78.4%)이었고,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 21명(56.8%), 대조군 15명(40.5%)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가족 중 조직(장기)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 2명(5.4%), 대조군 3명(8.1%)이었고, 본인이나 가족 중 조직(장기)을 이식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실험군 1명(2.7%), 대조군 2명(5.4%)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성별, 종교, 교육경험 유무, 본인이나 가족 중 조직(장기) 기증 공여 혹은 수여 경험 유무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 (n=37)	Cont. (n=37)	χ^2	p
Sex	Male	1(2.7)	6(16.2)	3.945	.107
	Female	36(97.3)	31(83.8)		
Religion	No religion	20(54.1)	18(48.7)	0.259	.971
	Christian	12(32.4)	14(37.8)		
	Catholic	4(10.8)	4(10.8)		
	Buddhism	1(2.7)	1(2.7)		
	Other	0(0.0)	0(0.0)		
1)	Yes	34(91.9)	29(78.4)	2.670	.190
	No	3(8.1)	8(21.6)		
2)	Yes	21(56.8)	15(40.5)	1.947	.245
	No	16(43.2)	22(59.5)		
3)	Yes	2(5.4)	3(8.1)	0.214	1.000
	No	35(94.6)	34(91.9)		
4)	Yes	1(2.7)	2(5.4)	0.347	1.000
	No	36(97.3)	35(94.6)		

- 1) Experience of hearing about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th
- 2) Experience of brain-death organ donation education
- 3) Experience of recipient
- 4) Experience of donor

3.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생명의료윤리 의식($t=1.47, p=.147$)과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t=0.22, p=.830$)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Homogeneity of biomedical ethics and organ donation knowledg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n=37)	Cont.(n=37)	t	p
	Mean±SD	Mean±SD		
1)	142.18±13.15	138.00±11.34	1.47	.147
2)	16.97±2.69	16.84±2.70	0.22	.830

- 1) Biomedical ethics
- 2) Organ donation knowledge

3.3 가설 검증

3.3.1 제 1 가설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명의료윤리 의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F=1.20, p=.278$)가 없어 제 1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3 참고).

Table 3. Differences in biomedical ethics and organ donation knowledge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F	p
		Mean±SD	Mean±SD		
1)	Exp.	142.18±13.15	139.94±11.56	1.20	.278
	Cont.	138.00±11.34	138.45±13.56		
2)	Exp.	16.97±2.69	18.70±2.42	35.21	.000
	Cont.	16.84±2.70	16.64±3.17		

1) Biomedical ethics
2) Organ donation knowledge

3.3.2 제 2 가설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뇌사자 장기기증 관련 지식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F=35.21, p=.000$)를 보여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참고).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점수는 두 집단 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회의 단기교육으로 진행되어 생명의료윤리 의식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Jeon[15]은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으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충분성을 설명하고 있고, Kwon[8]은 교육과정에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청취 경험 등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고취를 위해 생명의료윤리 교육의 질과 양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들로 1학년 때 생명의료윤리 관련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 고민,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가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적 지식과 가치관, 의사결정 능력 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4]. 따라서 임상실습에 나가기 전부터 임상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토대로 가치관 형성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생명의료윤리 교육부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복잡적이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Jung & Seo[21]의 연구에서도 뇌사자 장기기증 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2]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제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16%~22%[19,21,23] 정도로 간호사들에게도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Kang[24]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은 대학의 교과과정보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뇌사, 장기기증 및 생명의료 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간호학과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의 형성은 향후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상황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이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정립을 위해 깊이 있는 숙고와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연계성과 지속성이 있는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도덕이나 윤리성은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경험이 중요하다[25].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Im & Park[26]은 비판적 사고 성향이 생명의료윤

리 의식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라고 하였다. 비판적 사고를 높이고 효과적인 생명의료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교수자의 교수방법, 내용, 질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이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뇌사자 장기기증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생명의료윤리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의 의료인이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가 일 지역,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NOS. (2019.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https://www.konos.go.kr>
- [2] J. O. Lee & E. Y. Oh.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rgan donation of Nursing students in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i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289-297. DOI : 10.14400/JDC.2018.16.5.289
- [3] Y. J. Kim & M. N. Lee. (2011). Attitude on Nursing Ethical Values and on Brain Death Organ Donation of Hospital Nurs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10), 312-323. DOI : 10.5392/JKCA.2011.11.10.312
- [4] M. K. Cho.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311-320. DOI : 10.14400/JDPM.2013.11.4.311
- [5] S. Y. Kim. (2014).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7), 281-290. DOI : 10.5392/JKCA.2014.14.07.281
- [6] S. J. Kwon.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 Focused o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 Do*.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7] H. Y. Jung & K. I. Jung. (2012).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4), 37-48. DOI: 10.12811/kshsm.2012.6.4.037
- [8] Y. H. Kwon.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 262-272.
- [9] H. K. Chang, S. M. Noh, S. Y. Park, M. J. Kim. & H. Y. Han. (2014).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12(2), 47-70. DOI : 10.14729/converging.k.2014.2.2.47
- [10] J. S. Kim & I. S. Jang. (2016). The effect of an organ donation educa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ill to organ donatio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2(2), 104-112. DOI : 10.14370/jewnr.2016.22.2.104
- [11] Y. H. Shon & C. M. Cho. (2002). Public's Attitude to Organ Transplants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9(2), 279-287.
- [12] M. E. Rykhoff et al. (2010). A clinical group's attempt to raise awareness of organ and tissue donation. *Progress in Transplantation*, 20(1), 33-39. DOI : 10.1177/152692481002000106
- [13] E. A. Kim & S. E. Choi. (201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ving and brain death organ donation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6), 802-811. DOI : 10.4040/jkan.2015.45.6.802
- [14] H. E. Seo & M. Y. Kim. (2016). Operation Room Nurses' Ethical value regarding their attitude and meaning of life about organ transplantation in brain death.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4), 355-366. DOI : 10.7475/kjan.2016.28.4.355
- [15] H. S. Jeon. (201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8(3), 401-410.
- [16] J. A. Lee & S. Y. Kim. (2008).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medical students towards the organ

don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22(1), 120-129.

- [17] S. Randunz, B. Juntermanns, M. Heuer, N. R. FrBhauf, A. Paul & G. M. Kaiser. (2012).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attitude of medical students towards organ donation. *Annals of Transplantation: quarterly of the Polish Transplantation Society*, 17(1), 140-144. DOI : 10.12659/AOT.882648
- [18] S. J. Byun, H. K. Kim, A. R. Kim, H. S. Ha & K. O. Joen. (2003). Task analysis of korean transplantation nurse practition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3(2), 179-188.
- [19] H. R. Yoo. (2004).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regarding brain dead organ transplantatio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20] H. J. Choi. (2013).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on attitude and practice will to organ donation in brain dead dono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21] E. Y. Jung & J. H. Seo. (2016). The effect of brain death organ donation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7(1), 209-226. DOI: 10.22143/HSS21.7.1.11
- [22] H. S. You. (2009). The effect of brain death organ donation education on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5(2), 57-65.
- [23] M. H. Sung, E. Y. Son & S. E. Lee. (2006).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es regarding brain death organ donatio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1), 125-135.
- [24] H. Y. Kang. (1999). A study on 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organ dona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5(1), 7-19.
- [25] P. Chrisham. (1981). Measuring moral judgement in nursing dilemmas. *Nurs Res*, 30(2), 104-110.
- [26] M. H. Im & C. S. Park. (2014).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4423-4431.

주 세 진(Se-Jin Ju)

[정회원]



중독, 정신간호

· E-Mail : lovepdd@nsu.ac.kr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생명존중, 스트레스, 애착,

강 균 영(Gyun-Young Kang)

[정회원]



호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간호, 긍정심리, Human becoming
- E-Mail : mental74@kduniv.ac.kr

- 2006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5년 4월 ~ 2016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

박 정 희(Jung-Hee Park)

[정회원]



회복지심리상담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중독, 정신건강 사회복지, 동기강화 상담
- E-Mail : seraf2000@naver.com

- 2018년 2월 : 남서울대학교 중독재활 상담학과(상담학 석사)
- 2019년 9월 ~ 현재 : 동아대학교 의료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성덕대학교 사회복지심리상담과 시간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성운대학교 사